

# 特許管理 專擔部署 設置의

## 特許廳의 特許管理 擔要員 研修에

오늘날의 經濟社會를 産業情報時代 또는 技術競爭時代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나라 企業들이 國內외의 熾烈한 競爭에서 언제나 優位를 確保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 特許情報活用을 통한 技術革新과 特許管理를 效率的으로 하는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企業人들은 每年 쏟아져 나오는 모든

特許情報를 完全히 自社の 것으로 消化吸收하고 이를 土臺로 優秀한 最新技術의 選別導入과 技術蓄積으로 自主的 技術開發을 強力히 追求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企業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社內에 特許管理 專擔部署를 設置하여 專擔要員으로 하여금 이를 體系的으로 擔當케 하는데 있다 하겠다.

企業의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는 이러한 現

지금 우리나라 企業들은 눈앞으로 다가온 尖端技術産業社會에 對應하여 技術革新과 特許權의 重要性을 再認識하여야 할 時點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企業들이 國內외의 熾烈한 競爭에 恒常 優越한 地位를 維持할 수 있는 重要한 關鍵은 무엇보다도 新技術의 開發과 特許情報 및 이와 不可分 關係가 있는 特許制度의 戰略的 活用이라 하겠다.

이같은 實例는 오늘날 尖端技術을 主導하고 있는 先進國의 企業과 國內先進企業등에서 이미 實證된바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企業들도 先進技術의 模倣段階를 脫皮하여 그동안 蓄積된 技術과 經驗을 바탕으로 各種 技術情報를 自社の 것으로 消化 吸收하여 自主技術開發에 拍車를 加해야 하겠다.

특히 自社가 開發한 技術·考案·産業디자인·商標등은 재빨리 出願하여 他會社의 模倣등 競爭을 防止하도록 하고, 消極的으로 自己會社가 取扱하려는 商品에 對하여는 他人의 權利를 侵

害하는지의 與否를 事前에 檢討하여 이를 豫防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겠다.

그렇지 않고 他企業의 權利와 紛爭이 發生하였을 때에는 이를 解決하기 爲하여 莫大한 經費와 時間 및 勞力이 所要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 先進國의 企業들은 特許管理에 關한 問題가 企業活動의 基礎요, 企業經營戰略으로서 不可避하게 活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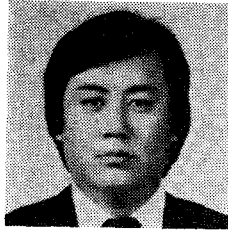
이에따라 特許廳은 지난 78년부터 各企業體에 特許管理專擔部署의 設置를 勸獎한 바 지난해 말 現在 約 280個企業이 이를 設置 運營해온 結果 技術革新과 特許管理에 主動的 役割을 하는 企業으로 成長했다.

한마디로 企業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現代의 技術과 情報時代에 있어서 企業의 特許管理專擔部署는 企業의 繁榮과 國家産業發展에 重要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따라 特許廳은 올해를 「企業特許出願에 對한 認識提高의 해」로 定하고 企業의 最高經營者 및 任職員들에게 工業所有權 敎育을 強化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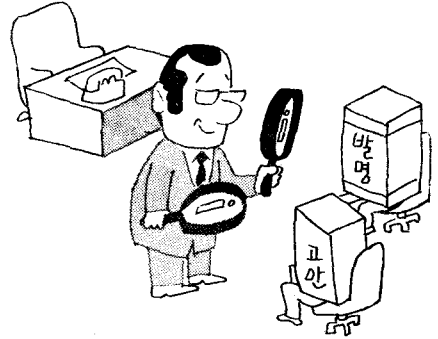
# 當爲性

## 부처



申 東 植  
〈本會 總務部長〉

# KIPA 컬럼



實的인 要請을 充足시킬 수 있는 지름길인 동시에 尖端工業化를 指向하는 企業戰略의 重要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當爲性에 비추어 볼 때 特許管理專擔部署에서 特許業務를 擔當하게 될 專擔要員은 國家產業發展의 核心的 要員이며 企業內에서는 最高經營者의 特許參謀로서 重且大한 任務를 遂行해 나갈 役軍이라는 使命과 自負心을 가져야 할 것이다.

여 企業의 特許專擔部署 設置를 지난해 280個 企業에서 500個 企業으로 늘리기로 하고 有望中小企業에까지 專擔部署 設置를 적극 勸獎한 결과 지난 7월 10일을 기해 514個 企業이 特許管理專擔部署를 設置하는 凱歌를 올렸다.

特許廳은 또 이 事業을 成功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금년들어 特許管理專擔部署를 設置한 268個 企業중 1次로 126個 企業의 特許管理專擔要員 148名을 대상으로 特許管理를 効率化할 수 있는 能力과 資質을 갖추게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日間에 걸쳐 關係法令解説을 비롯한 特許情報管理技法등 各種目에 대해 無料研修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關係要員을 養成시킬 計劃으로 있다.

特許廳은 또 優秀特許出願業體의 發掘·褒賞 및 「우리상표 전시회」 開催등 多樣한 計劃도 마련해 놓고 있다.

此際에 特許管理專擔部署 設置를 促求하면서 아울러 新設企業의 專擔要員들이 遂行해야 할 特許管理의 基本方向을 提示해 보고자 한다.

우선 企業이 필요로 하는 國內外的 各種 情報

를 蒐集·整理하여 所要部署에 서어비스해야 하며 이를 위해 特許公報를 계속 入手·蓄積하면서 新技術 新製品 開發에 필요한 最近技術情報를 確保함과 同時 自社 特許權을 取得·保全해 나가는 것으로서 事前 審議를 거쳐 開發이 決定된 技術이 成功的으로 開發되었을 때 이를 權利化하여 獨占的 利益을 確保하는 것이 急先務라 하겠다.

또 社內 創案發明을 적극 獎勵하기 위하여 職務發明補償制度의 導入 및 適切한 運用으로 從業員의 職務發明을 誘導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國內外 企業에 自社の 特許 및 ノウ하우를 實施許諾하거나 他社의 것을 選別導入하여 技術開發을 促進시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밖에도 企業間에 發生하는 特許紛爭을 豫防하거나 이를 效果的으로 處理함으로써 社內 各部署의 新規事業 着手에 도움을 주는 일도 特許管理 專擔要員이 遂行해야 할 일이다.

이와같이 特許管理 專擔要員이 遂行해야 할 機能이 企業內的 業務全般에 걸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되어 있음을 勘案할 때 아직도 特許管理專擔部署를 設置하지 않은 企業은 서둘러 設置하고 이미 設置한 企業도 그 機能을 다 할 수 있도록 最先의 配慮를 해야 할 것이다. <※>

1 年 앞 선 特許 管理  
10 年 앞 선 先進 企業